

언어의 국제주의에 관한 고찰

- 유럽어에서의 어휘소 형태 분석

이진희(영산대)

1. 머리말

언어의 국제주의에 대한 연구는 지난 과거 언어학에서 크게 부각되지 못한 연구영역이다. 이는 지금까지 언어학이 자국의 언어영역에 중점을 둔 민족주의적 경향을 견지해 온데에 그 원인이 있기도 하며 언어간 접촉현상을 통한 상호 호완적 성격보다는 단일언어의 독자성에 그 중심을 두는 견해에도 그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이번에 유럽 각국의 언어들에 있어서 기존의 개별 언어들에 나타나고 있는 또는 유지되어 오고 있는 언어의 동질성에 대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번 연구를 통하여 20세기 들어 통합화 과정을 겪는 유럽의 역사적 움직임이 언어에도 투영되는 모습을 연구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며 지금까지 개별언어의 순수 독자성만을 추구해 온 언어관에서 언어간의 국제적 접촉을 이해하고 상호 보완적 발전 방향으로 서로를 인정해 보는 계기를 마련해 보고자 한다. 특히 각국 언어의 어휘소에 있어서 동일형태 또는 유사형태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물론 본 연구의 대상은 개별언어의 고유어보다는 상호접촉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언어발달과정에서 고유어에 동화과정도 엿보여지는 외래어의 어휘소가 주 연구 대상이 된다.

2. 국제주의 Internationalismus란 무엇인가?

먼저 국제주의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일반사전에서의 표현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

1) 우리말 사전에 나타난 국제주의에 대한 설명은 국제관계에 한정되어 있으며,

"Internationalismus: (Sprachw.) Wort, das in gleicher Bedeutung und gleicher oder ähnlicher Form in verschiedenen Kultursprachen vorkommt". (DUDEN. Deutsches Universal Wörterbuch A-Z 1989, 774)

"Internationalismus: Streben nach internationalem Zusammenschluß" (Wahrig Fremdwörter Lexikon 1983, 318)

언어학 전문용어에 대한 정의를 전문으로 하는 언어학사전에서의 국제주의에 대한 설명은 또한 다음과 같다:²⁾

"Internationalismus: in vielen (meist genetisch verwandten) Sprachen mit gleicher Bedeutung verwendetes Wort gleicher Herkunft" (Kleines Wörterbuch sprachwissenschaftlicher Fachausdrücke, Leipzig 1984, 118)

"Internationalismen: Lexeme verschiedener Sprache mit gleicher oder ähnlicher Form und Bedeutung, z.B. dt. Funktion, engl. function, frz. fonction, span. función, russ. funkcija. Diese Wörter bilden (auf interlingualer Ebene) zusammen ein (ausdrucksseitig nicht realisierbares) Interlexem" (Metzler Lexikon Sprache, Helmut Glück (Hg.), Stuttgart 1993, 277)

지금까지의 사전적 정의에서 일련의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 일반사전이

언어적 측면에서 고려되는 경우를 찾아볼 수 없다:

"국제주의: 독립한 각 국가가 협조하여 세계 평화와 질서유지를 실현하려는 입장 (중략)" (국어대사전, 이희승 편저, 1998)

"국제주의: 제나라와 민족만의 생각에서가 아니고, 국제상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주의" (우리말 큰사전, 한글학회 지음, 1997)

"국제주의<internationalism> (國際主義): 근대 국제사회에서 개별국가의 이해를 초월하여 모든 민족·국가간의 협조·연대(連帶)·통일을 지향하는 사상이나 운동.(중략)" (두산세계대백과 99)

- 2) 언어학도들에게 널리 활용되는 Bußmann (1990): Lexikon der Sprachwissenschaft에는 Internationalismen에 대한 항목이 아직 수록되어 있지 않다.

건 언어학사전이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설명을 기초로 하여 “국제주의”에 대한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볼 수 있다: 1) 국제주의에 대한 예로 제시되는 대부분의 어휘들은 한 언어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 언어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매우 많은 지역 언어들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또한 이들 단어들은 어원적 측면에서 서로 동질성을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다. 2) 국제주의에 해당되는 어휘들은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형태 또한 유사한 특징을 갖고 있다. 나아가 문법적, 정서법적 유사성도 지니고 있어 특별한 해석 없이도 이해되어질 수 있는 경우가 많다. 3) 국제주의는 어느 한 특정언어에서 차용되어 발달하는 경우가거나 라틴어나 그리스어의 형태소에서 유래되는 조어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를 종합하여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제시할 수 있다: 어떤 어휘가 의미는 같으며 발음과 표기형태가 같은 경우 이는 완벽한 국제주의 성격을 띠고 있는 이상적인 상태라 할 수 있다. 이에 의미는 같으며 발음만 동일한 경우, 또는 형태만이 동일한 경우도 어휘 상호간 국제주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의미에 유사성이 없는 경우나, 의미는 상통하나 발음 또는 형태상의 동질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들은 국제주의의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다 (Schaeder 1987, 128f).

3. 언어의 국제주의에 대한 연구의 전개과정

언어영역에 있어서 국제주의에 대한 연구는 그리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외국어에서 유래하는 차용어 또는 외래어가 특히 어휘적 측면에서 그 고유 독자성을 유지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 또는 어휘 형태에 대한 비교 분석은 근래에 이르러 본격적인 연구 대상으로 부각되었다. 민족국가가 성립되며 유럽대륙 전체에 민족주의의 물결이 압도적이던 18세기와 19세기의 정치, 사회적 분위기에서 국제주의는 고유언어의 고착화에 중점을 두는 국수주의의 물결 속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당시 외부에서 유입되는 차용어나 외래어에 대하여 자국의 고유어로 대체하거나 표기를 동화시키는 언어국수주의 현상과 이에 대한 노력이 그 무게중심을

연고 있었다. 특히 독일어의 경우 이러한 언어순화운동이 매우 활발히 전개되어 다른 유럽의 어떤 언어에서 보다 차용어나 외래어를 독일어 고유의 시스템에 동화시키려는 노력이 강하게 나타났다 (Lee 1997).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외래어에 대한 의식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정치적 주변 환경의 변화와 다민족 국가의 형성으로 인하여 특정 민족언어에 대한 독자성 고집이 현실적으로 어렵게 느껴진다. 18세기와 19세기의 역사는 민족국가와 고유언어로 상징되는 민족주의 정신의 지대한 영향 속에 있음을 많은 경우에서 찾아볼 수 있다 (Braun 1979, 95). 그러나 20세기에 들면서 역사상 많은 민족주의로 기인된 전쟁을 치르며 유럽 대륙은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1945년을 시점으로 하여 기존의 강인한 민족주의 정신에 대한 수정과 반발로 민족을 초월한 사해동포주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게 되며 이는 평화를 갈구하는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 그 영향력이 급속히 확산된다. 이러한 정치적, 사회적 변화뿐만 아니라 인류문명의 발달도 언어국제주의에 대한 관심을 가져오게 한다. 교통수단과 통신시설의 발달, 매스컴의 역할 증대 등은 국가간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케 되며 이를 통해 언어적 접촉기회도 확대되게 된다. 이러한 주변환경의 변화를 통해 언어에 대한 정책적 관점이 변화하게 되며 기존의 언어 국수주의적인 측면과 달리 세계주의적 관점, 즉 언어국제주의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나타나게 된다 (Braun 1990, 14f).

여러 언어에 대한 언어학적인 전체적 또는 부분적 비교연구는 이미 17세기에 이루어지고 있다. 당시 언어의 형태를 중심으로 한 비교연구인 언어 유형학적 시도가 나타났으며 이는 18세기에 더욱 빈번히 이루어지게 된다. 당시 이러한 연구의 목적은 합리적이며 경험적인 표현에서 보편적이며 철학적인 문법을 찾는 데 있었다. 19세기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역사적 측면에서의 비교연구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각 언어들에 대한 어원적 유래와 발전과정, 친족관계 등을 중심으로 한 당시의 연구 노력들은 특히 Schlegel, Bopp, Rask, Grimm, Schleicher와 같은 학자들로 대표된다. 이러한 언어유형학적 연구방향은 현대에도 그 명맥이 이어져 1960년대의 보편주의 연구에서 잘 반영되고 있다 (Greenberg, Chomsky, Seiler 등) (Schaeder 1987, 129f).

언어유형학적 측면에서 오늘날 유럽에서의 각 언어들에 대한 비교연구를 언어접촉과 대비현상으로 분석하여 상호간의 교류특성을 독특하게 분석하고 있는 경우를 Décsy (1973)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언어접촉 현상에 있어서도 유럽각국의 언어들이 동일한 입장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Décsy의 주장은 언어경계선 Sprachgrenze이란 새로운 분석의 틀을 제시하게 된다. 언어경계선이란 언어가 사용되고 있는 나라의 국경선 구조에 의하여 한 언어의 타 언어와의 교류성, 즉 언어접촉현상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이론이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독일어의 경우 총 4850km의 언어경계선을 가지고 있다. 그 중 4150 km는 상호 대조적인 성격의 언어들과 접하는 경우이며 550 km의 경우 상호대조가 적은 언어들과의 접촉이 이루어지는 지역이며, 나머지 150km의 경우 상호 대조적인 성격이 극히 적은 언어권과의 접촉이 나타나는 지역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가장 광범위한 상호 대조적인 성격을 띄는 언어경계선은 체코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폴란드어, 소르브어, 레토로만어, 슬로베니아어, 헝가리아어, 슬로바키아어 등과 접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이와 달리 상대적으로 언어적인 상호대조성이 적게 나타나는 지역으로 네덜란드어, 덴마크어, 프리즈어, 룩셈부르크어와 경계를 이루는 지역이다. 프랑스의 경우는 독일과 달리 매우 단순한 형태로 나타난다. 대조성이 적게 나타나는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접촉지역과 상호 대조적인 성격이 나타나는 독일어, 네덜란드어, 룩셈부르크어 등의 언어경계선으로 구분 지어 볼 수 있다. 이렇듯 개별언어마다 언어접촉현상의 정도나 경우가 다르게 관찰되어질 수 있으며 나아가 국제주의의 개별적 특성도 다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Décsy는 강조하고 있다 (Décsy 1973, 176ff). Décsy는 여기서 언어의 비교연구에서 지정학적 주변정세의 영향을 중시하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오늘날도 상당부분 설득력 있는 이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언어가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일부는 자국의 고유어에 동화현상을, 또 다른 일부에서는 유래어의 특징이 보존되어 차후 서로의 공통성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있어 언어사회 내부적인 시대적, 사상적 흐름의 영향뿐만 아니라 이웃 언어들과의 지정학적 위치를 바탕으로 한 접촉의 정도의 영향 또한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4. 어휘형태에 나타나는 국제주의 현상 비교분석

유럽 각국의 언어들에서 국제주의 성격을 나타내는 어휘형태를 찾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다. 이미 많은 경우에서 형태가 유사한 어휘들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를 우연한 결과로 생각할 수는 없다. 이는 정치적, 문화적 또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국제적 접촉현상의 결과이며 상호교류가 활발해지며 나타나는 개방성의 언어적 측면의 산물이다.

Braun(1978)은 오늘날의 어휘에 있어서 국제화 현상을 분석하기 위하여 대상 어휘들의 사전수록내용을 비교해본다면 분명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수년간의 노력 끝에 그는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에서의 유사어휘에 대한 형태분석 결과를 낼 수 있었다. 비교적 활용빈도가 높고 난이도가 낮은 학생용 사전에 수록된 내용만의 분석을 통하여 3500에서 4000 정도의 유사 또는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어휘들을 찾아낼 수 있었다. 유럽 각국어에서 형태와 의미가 동일한 어휘들만을 비교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일부 부분적인 표기상의 차이는 용인하는 것으로 하였다 (예: Motor - moteur, Tee - tea - thé). 또한 조어론적 측면에서의 사소한 차이도 문제삼지 않았다 (예: exportieren - export - exporter, Qualität - quality - qualité). 이에 발음부분의 차이는 완전히 비교분석의 기준에서 배제하였다 (Braun 1990, 17). Helga Grünhoff (1983)는 독일어, 영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프랑스어에서 나타나는 국제주의 특성을 나타내는 어휘들을 분석하였다. 각 국어의 사전에서 “R” 부분의 표제어만을 대상으로 하여 112개의 국제화된 결과를 비교할 수 있었다.

물론 이와 상반되는 경우도 독일어에는 나타나고 있다. 유럽 각국의 언어에서 서로 의미와 형태가 같은 어휘들이 나타나는 국제주의 현상이 있는가 하면 이와 달리 독일어에서만 나타나는 독자적인 어휘현상도 공존하고 있다: Fernsehen, Fernsprecher, Hubschrauber, Rundfunk 또는 Hörfunk. 국제주의 현상을 비교 분석하는 일에 몰두하다보면 이와 반대되는 현상과도 직면하게 된다. 즉 어휘소나 단어의 형태가 일부 또는 전체적으로 자국어의 특징에 동화되어있는 언어순화주의 현상을 일컫는 것이다. 한마디로 언어현상에 있어서 국제주의가 있다면 이의 반대편에 언어순화주의가 공존

하고 있음을 우리는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독일어는 언어사적으로 특수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다른 어떤 유럽어에서 보다는 언어 국수주의적 성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좋은 예로서 Fernsehen이란 단어를 들 수 있다. 대부분의 유럽 각국어에서는 television이라는 그리스어와 라틴어에서 유래된 혼합어를 기초로 한 어휘가 쓰이고 있는 것과는 매우 이질적인 특징을 나타내주고 있다: television (영어), televisie (네덜란드어), television (스웨덴어), télévision (프랑스어), televisione (이탈리아어), televisión (스페인어), televisão (포르투갈어), televizenye (러시아어) 등 (Braun 1990, 30f).

외래어가 독일에 유입되어 상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는 시대적 배경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중세시대에 독일어에 영향을 준 언어가 라틴어였다면, 인문주의시대에는 문호개방을 위해 라틴어와 그리스어의 유입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17세기와 18세기는 문화적 영향력에 의해 프랑스어의 지대한 영향을 받았으며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어는 영어와의 빈번한 접촉기회를 갖는다. 이는 독일에서만 나타나는 특정한 현상은 아니며 대부분의 유럽지역에서 외래어의 차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수많은 국제화된 또는 외래어의 유입에 의해 차용된 어휘의 존재를 우연의 산물로 볼 수는 없다. 이는 분명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또는 그 외 여러 가지의 국제적인 접촉현상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언어의 비교분석에서는 늘 국가를 초월한 언어간의 공통성을 발견하게 되며 이러한 언어적 공통성을 국제주의라는 개념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예를 위해 유럽 각국의 언어에서 국제주의 성격을 잘 나타내주는 어휘들을 비교하여 영역별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Braun 1990, 16ff):

정치분야

Demokratie (독일어) - democracy (영어) - démocratie (프랑스어) -
democrazia (이탈리아어) - democracia (스페인어),
Nation - nation - nation - nazione - nación,
Parlament - parliament - parlement -parlamento - parlamento,

예술분야

Graphik - graphic - graphique - grafica - gráfica,
Museum - museum - musée - museo - museo,
Plastik - plastic - plastique - plastica - plástica,

기술분야

Instrument - instrument - istrument - instrumento - instrumento,
Maschine - machine - machine - macchina - máquina,
Motor - motor - moteur - motore - motor,

문학분야

Drama - drame - drame - dramma - drama,
Text - text - texte - testo - texto,
Literatur - literature - littérature - letteratura - literatura,

무용분야

Bolero - bolero - boléro - bolero - bolero,
Polka - polka - polka - polca - polca,
Tango - tango - tango - tango - tango,

음료수분야

Kaffee - coffee - café - caffè - café,
Tee - tea - thé - tè - té,
Whisky - whisk(e)y - whisk(e)y - whisky - whisky.

이 경우 단어들의 형태에는 많은 유사성을 띠고 있으나 음성학적 측면에 있어서는 그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지 못하다. 즉 발음상의 국제성은 전혀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발음에 있어서 각 단어들은 서로 매우 다른 모습을 나타낸다.

어휘상 형태의 유사성이 특히 많이 남아있는 예를 우리는 악기명칭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리가 익히 알고있는 악기의 명칭들에서 어휘 형태의 국제주의적 성격은 강하게 나타난다:

Flöte (독일어) - flute (영어) - flûte (프랑스어) - flauto (이탈리아어)
- flauta (스페인어)

Gittare - guitar - guitare - chitarra - guitarra,

Gong - gong - gong - gong - gong,

Harfe - harp - harpe - arpa - harpa,

Klarinette - clarinet - clarinette - clarinetto - clarinete,

Mandoline - mandolin - mandoline - mandolino - mandolina,

Orgel - organ - orgue - organo - órgano,

Saxophon -saxophon - saxophone -sassofonos - axófono,

Trompete - trumpet - trompette - tromba - trompeta,

Tuba - tuba - tuba - tuba - tuba,

Viola - violin - viole - viola - viola,

Violine - violine - violon - violino - violín,

Xylophonx - xylophon - xylophone - silofono - xilófono.

이 경우 문명간의 상호교류의 결과가 언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현상으로 분석되어질 수 있다. 새로운 기술의 악기가 특정지역에서 개발되어 전파되면서 많은 지역에서 그 인기를 얻게 됨으로써 외래적인 어휘의 형태가 그대로 그 언어문화권에서도 그 고유특성을 누리는 경우이다. 이러한 예에는 또한 음료나 의류, 춤, 건축, 식물, 동물 등의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음료분야

Kaffee (독일어) - coffee (영어) - café (프랑스어) - caffè (이탈리아어)
- café (스페인어),

Tee - tea - thé - tè - té,

Bier - beer - bière - birra - (cerveza),

무용(춤)분야

Tanz - dance - danse - danza - danza,
Bolero -bolero - boléro - bolero - bolero,
Polka - polka - polka - polca - polca,
Tango -tango - tango - tango - tango,
Walze - waltz - valse - valzer -vals,

식물분야

Geratine - geranium - géranium - geranio - geranoi,
Narzisse - narcissus - narcissé - narciso - narciso,
Orchidee - orchid - orchidée - orchidea - orquidea,
Rose - rose - rose - rosa - rosa,
Tulpe - tulip - tulipe - tulipano - tulipán,

건축분야

Balkon - balcony - balcon - balcone - balcón,
Bank - bank - banque - banca - banco,
Garage - garage - garage - garage - garage,
Hotel - hotel - hôtel - hotel - hotel,
Kapelle - chaple - chapelle - capella - capilla,
Kathedrale - cathedral - cathédrale - cattedrale - catedral,
Theater - theater - théâtre - teatro - teatro.

동물들의 명칭에서 또한 분명한 특징이 관찰된다. 이미 널리 사용되는 가축들의 경우 대부분 고유어 형태로 표현되어지고 있다 (Pferd 독일어 - horse 영어 - cheval 프랑스어, Hund - dog - chien). 그러나 이국적인 동물들, 즉 유럽지역이 아닌 타 지역이 원산지인 동물들의 경우 국제주의적 특성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Büffel (독일어) - buffalo (영어) - buffle (프랑스어) - bufalo (이탈리

아어) - búfalo (스페인어),
 Elefant - elephant - éléphant - elefante - elefante,
 Giraffe - giraffe - girafe - giraffa - jirafa,
 Gorilla - gorilla - gorille - gorilla - gorila,
 Känguruh - kangaroo - kangourou - canguro - canguro,
 Krokodil - crocodile - crocodile - coccodrillo - cocodrilo,
 Lama - lama - lama - lama - lama,
 Leopard - leopard - léopard - leopardo - leopardo,
 Pinguin - penguin - pingouin - pinguino - pinguino,
 Puma - puma - puma - puma - puma,
 Tiger - tiger - tigre - tigre - tigre,
 Zebra - zebra - zèbre - zebra - cebra.

이미 언급한바와 같이 위와 같은 분석에서는 어휘의 단순형태만을 비교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런 경우 국제주의에 대한 개념이 불명료해지는 문제점이 있다. 물론 위의 분석에서는 주로 명사를 주 대상으로 하였으나 국제주의에 대한 일반화된 개념을 위해서는 그 대상이 한정되는 편협함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 언어학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한 총체적 대상개념의 국제주의 정의가 여전히 필요한 것이다. 단순히 국제주의를 “여러 언어들에서 유사하게 또는 동일하게 나타나는 한 단어”라고 규정한다면 여기서 단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매우 애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문법과 사전학에서는 “단어”와 “활용형태” 또는 “단어형태”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Haus, Hauses, Hause, Häuser, Häusern 등은 단어 Haus의 활용형태 (또는 단어형태)인 것이다. hoher, hohe, hohes, höher, höhere, höheres, höchster, höchste, höchstes, hoch, höher, höchst 등은 단어 hoch의 활용형태 (또는 단어형태)이다. gebe, gibst, gab, gab(e)st, gäbe, gegeben 등은 단어 geben의 활용형태 (또는 단어형태)이다. 더욱 복잡한 경우는 gut (besser), viel (mehr, am meisten), sein (bin, ist, sind, war, wäre, gewesen 등)과 같은 예이다. 이렇듯 비교대상에 대한 분명한 견해를 위해 사전편찬학적 측면에서 “기본형 Grundform”이란 개념

을 도입해 볼 수 있다. 사전에서 채택하는 표제어 개념을 활용해 보는 것이다. 독일어사전에서 기본형이라 함은 동사의 경우 현재 능동 부정형, 명사의 경우 단수 1격, 형용사의 경우 원형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은 다분히 임의적인 요소가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특히 체계가 다른 여러 언어를 대상으로 비교하는 경우 이는 더욱 그렇다: 라틴어 동사의 경우 1인칭 단수 현재 능동 또는 수동이 기본형. 그러므로 이러한 “기본형” 또는 “단어”라는 개념은 현상을 나타내는 추상적 의미에 불과하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Schaefer (1990)는 언어체계(*langue*)와 활용(*parole*) 측면에서 분리하여 생각함으로써 해결책을 찾고자 했다: “활용(*parole*)된 다양한 단어형태는 언어체계(*langue*) 속에서 단어를 통하여 대표되며 한 단어(*langue*)는 활용(*parole*) 과정에서 특정 단어형태로 실현되어 나타난다” (Schaefer 1990, 42f). 여기서 그는 “단어 *Wort*”나 “단어 형태 *Wortform*”라는 표현을 대신하여 “어휘소 *Lexem*”라는 개념을 사용코자 한다. 즉 각 언어들에서 특정한 의미나 형태가 같은 단어들을 국제주의라 한다면 여기에서 단어들이란 더 정확히 어휘소들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국제주의에서 의미하는 어휘소는 단일언어에서의 어휘소와는 다소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Schaefer는 “*Interlexem*”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이를 해결코자 한다. 먼저 “*Lexem*”은 언어체계(*langue*) 측면에서 단일언어의 사전 속에서의 추상적인 기본단위라 정의하고 있다. 이는 1에서 *n*까지 활용(*parole*)되어 의미가 같은 단어형태(단어, 어휘)로 표현되어진다. 이에 대응하여 다중언어체계(*Inter-Langue*) 측면에서 여러 언어들 of 사전에서의 추상적인 기본단위로서 “*Interlexem*”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1에서 *n*까지 활용됨에 있어 다양한 언어들에서 의미적으로 등가적이며 형태상 상응하는 어휘소(*Alloloxeme*)로 표현되는 것을 일컫는다. Schaefer는 이를 다음과 같이 도식화하여 정리하고 있다 (Schaefer 1990, 44):

Monolinguale Ebenen		Interlinguale Ebenen	
Verlauf	System	System L1-Ln	Intersystem
Lex	Lexem	Lexem L1-Ln	Interlexem
Morph	Morphem	Morpheme L1-Ln	Intermorphem
Graph	Graphem	Grapheme L1-Ln	Intergraphem
Phon	Phonem	Phoneme L1-Ln	Interphonem

이는 언어층위의 이중적 개념을 도입한 방법으로서 서로 체계가 다른 속에서 언어적 요소를 비교함에 있어서 보편적 비교기준을 가지려는 노력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다. 즉 단일언어체계에서와 달리 서로 상이한 다양한 언어체계의 언어대상을 비교하는 경우 그 기준이 단일언어에서와 같아서는 안되며 이로서 파생되는 오류를 지적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다양한 언어를 바탕으로 하는 국제주의의 기본 연구방법에서의 문제점을 제시하는데 매우 큰 기여를 하고 있으나 그 해결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 기존의 추상적 기준개념인 Lexem의 적용 한계를 해결코자 Interlexem이라는 또 다른 추상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이 새로운 개념 속에서 문제의 해결보다는 이를 잠정적으로 수용하는데 그치며 이러한 추상적 기준개념이 구체화 과정으로 해석되는데는 미흡한 점이 남아 있어 아직 언어학적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5. 맺음말

유럽 각국의 언어들이 어원상으로는나 발전배경에 있어서 동일한 특성을 지니기보다는 서로 각각의 고유성을 나타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동질적이며 유사한 특성을 나타내는 국제주의적 경향을 점점 더 두드러지게 나타내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어휘 측면에서 특히 잘 나타나고 있다. 이는 역사적으로나 시대적 배경에

있어 언어간 상호 접촉현상의 결과이며 앞으로 세계가 지구촌화되어 빈번한 국제적 교류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이는 고립보다는 개방을 추구하는 시대 속에서 사회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의 하나로서 언어의 국제주의, 또는 국제화된 어휘의 사용은 언어적 측면에서만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시대적 흐름의 결과이며 나아가 이에 순응함으로써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어휘에 대한 국제주의에 대한 가치평가를 내린 Braun(1990)의 주장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1) 국제주의는 다양한 고유어를 지닌 인간들의 일상적인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해 줄 수 있다. 수많은 외래어가 외래어로 인식되지 않음으로써 쉽게 이해되어 질 수 있다. 2) 국제주의는 외국어 습득이나 외국어교육에서 많은 효용가치를 제시할 수 있다. 많은 유사한 또는 동일한 어휘소들이 이미 유럽의 각국어에서 분명한 어휘구성요소로 받아들여짐으로써 이를 통해 외국어 습득에 용이함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3) 국제주의는 유럽에서의 역사적이며 문화적인 접촉현상의 과정과 그 결과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4) 국제주의는 하나로 통합되는 유럽의 동화현상을 나타내 주는 단어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다” (Braun 1990, 32).

참 고 문 헌

- Braun, Peter(1978), "Internationalismen - Gleiche Wortschätze in europäischen Sprachen, In: Muttersprache 88m S.368-373
- Braun, Peter(1979), "Fremdwörter als Internationalismen - Ein Beitrag zur interlinguistischen Behandlung von Fremdwortfragen, In: Fremdwort - Diskussion, Peter Braun (Hg.), München, S.95-103
- Braun, Peter(1990), "Internationalismen - Gleiche Wortschätze in europäischen Sprachen", In: Internationalismen: Studien zur interlingualen Lexikologie und Lexikographie, Peter Braun (Hg.), Tübingen 1990, S. 13-33.

- Décsy, Gyula(1973), Die linguistische Struktur Euopas, Wiesbaden.
- Grünhoff, Helga(1983): Die Internationalismen und ihre lexikographische Kodifizierung. Eine vergleichende Untersuchung über die international verbreiteten Ausdrücke in Wörterbüchern der englischen, deutschen und romanischensprachen: der Buchstabe R, Heidelberg.
- Haarmann, H.(1976): Grundzüge der Sprachtypologie, Stuttgart.
- Lee, Jinhee(1997), "Der Sprachpurismus im Deutschen", In: 영산논총 제1집, 188-206, 영산대학교 출판부.
- Möcker, Hermann(1975), Wie "international" kann unsere Rechtschreibung gemacht werden? Beobachtungen und Überlegungen zur "Eindeutschung" von Fremdwörtern, In: Muttersprache 85, Wiesbaden, S.379-399
- Rein, K.(1983): Einführung in die Kontrastive Lingistik, Darmstadt.
- Schaeder, Burkhard(1987), Zur Regulierung der Fremdwortorthographie aus der Sicht der Internationalismen-Forschung, In: Zabel, Hermann (Hg.), Fremdwortorthographie, Tübingen, S.126-143.
- Schaeder, Burkhard(1990a), Versuch einer theoretischen Grundlegung der Internatinalismenforschung, In: Internationalismen: Studien zur interlingualen Lexikologie und Lexikographie, Peter Braun (Hg.), Tübingen, S. 34-46.
- Schaeder, Burkhard(1990b), Das Problem der Äquivalenz - aus der Sicht der Internationalismenforschung, Internationalismen: Studien zur interlingualen Lexikologie und Lexikographie, Peter Braun (Hg.), Tübingen, S. 63-73.
- Volland, B.(1986): Französische Entlehnungen im Deutschen. Transferenz und Integration auf phonologischer, graphematischer, morphologischer und lexikalisch-semantischer Ebene (=Linguistische Arbeiten 163), Tübingen.
- Zabel, Hermann(1986): Die Schreibung der Fremdwörter im Deutschen, Probleme der Regelformierung, In: New Rends in Graphemics and

Orthography, Augst, Gerhard (Hg.), Berlin/New York, 179-196
Zabel, Hermann(1987): Aspekte der Fremdwortorthographie, In: Sprache,
Schrift, Rechtschreibung, Glinz, H./Schaeder, B./Zabel, H., Düsseldorf,
101-128.

Zusammenfassung

Internationalismen der Sprache - Eine Untersuchung der Lexemformen in europäischen Sprachen

Lee, Jinhee(Youngsan Univ.)

Mehrere Sprachen insgesamt oder in Ausschnitten miteinander zu vergleichen, hat die Sprachwissenschaft mit je unterschiedlichen Erkenntnisinteressen wenigstens seit dem 17. Jahrhundert unternommen. Bis in diese Zeit reichen die Versuche einer inhaltlichen, d.h. auf die Inhalte sprachlicher Formen bezogene Sprachtypologie zurück. Im 19. Jahrhundert entstand und entwickelte sich die historisch-vergleichende (komparatistische) Sprachwissenschaft mit dem vorrangigen Bestreben, Ursprung, Entwicklungsgeschichte und Verwandtschaftsbeziehungen einzelner Sprachen durch vergleichende Untersuchungen zu rekonstruieren. Die sprachtypologischen Bemühungen früherer Zeiten haben ihre Fortsetzung in der neueren, etwa in den 60er Jahren verstärkt einsetzenden Unversalienforschung.

In den meiseten europäischen Sprachen gibt es nicht geringe und auffällige Lehnwortbestände. Diese Wortbestände beruhen nicht auf Zufälligkeiten, sondern sie sind Ergebnisse internationaler Kontakte mit

politischen, kulturellen, ökonomischen und anderen Voraussetzungen. Diese sprachlichen Gemeinsamkeiten in verschiedenen Sprachen werden mit dem Begriff des Internationalismus erfaßt.

Obwohl die europäischen Sprachen sich immer mehr von den gemeinsamen Ursprungssprachen entfernt haben, verraten die Wortbestände der Internationalismen Tendenzen der Annäherungen und der Gemeinsamkeiten, vor allem auf der Ebene des Wortschatzes. Im Ausblick auf Möglichkeiten der Verwertung von nationalen Wortschätzen kann man so formulieren: Internationalismen 1) können die Alltagskommunikation zwischen Menschen verschiedener Herkunftssprachen erleichtern; sie offenbaren, daß viele Fremdsprachen gar nicht so fremdartig sind; 2) haben im Hinblick auf den Fremdspracherwerb und den Fremdsprachenunterricht multiplizierten Gebrauchwert: Viele Interlexeme gehören zum festen Bestand europäischer Sprachen; 3) geben Aufschluß über geschichtliche und kulturelle Kontaktvorgänge und Kontaktergebnisse in Europa; 4) können als Wortschätze einer möglichen europäischen Integration betrachtet werden".